

## 미나미하마 지구 창고군

1882년에 내륙의 광산에서 항구로 석탄을 운반하는 홋카이도 최초의 철도가 개통되면서 오타루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증가하는 항구 이용 수요에 맞춰 해안 매립이 이루어져 새로운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1889년에는 매립지에 사카이마치, 이로나이, 기타하마, 미나미하마라는 새로운 지구가 탄생하여 이 도시의 상업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도매업자가 미나미하마 지구의 사카이마치 거리에 창고와 상점을 세웠으며, 그중 대부분은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일부 도매업자는 홋카이도산 콩류 등의 농산물에 주목하여 부를 쌓았습니다. 그들은 이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매입하여 가격이 오를 때까지 저장했다가 팔았습니다. 미나미하마 지구에 있는 구 기무라 창고, 구 시마타니 창고, 구 다카하시 창고는 오타루의 과거 번영했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오타루 경제 부흥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 구 기무라 창고

기무라 창고는 1894년에 지어졌으며, 기무라 가문이 소유하고 있던 9개의 창고 중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타루 앞바다 해역에서 잡힌 청어로 만들어진 비료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비료는 이후 혼슈 남서부의 쪽밭과 목화밭에 사용하기 위해 출하되었습니다. 이 창고에는 원래 있던 특징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석조 복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복도에는 항구에서 창고로 끌어들인 광차를 운반하기 위한 레일이 깔려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남획으로 청어 산업이 쇠퇴하자 건어물을 저장하는 데 이 창고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항구로서 오타루의 지위는 점차 상실되었고, 1960년대까지 이 주변의 다른 많은 창고와 마찬가지로 기무라 창고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1983년에 기타이치 유리에 의해 개수되어 상점 겸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건축물의 개수와 재이용이 성공을 거둔 것을 계기로 사카이마치 거리와 오타루 운하 주변의 옛 창고에 다른 상업 시설이 문을 열었고, 미나미하마 지구는 매력적인 쇼핑 지역으로 거듭났습니다.

### 구 시마타니 창고

시마타니 창고는 1892년에 증기선 회사인 시마타니 기선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이 창고는 목재 뼈대에 응회석을 고정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돌의 두께는 15cm 정도이며, 금속문과 상부에 있는 작은 창문에 설치된 금속 셔터와 함께 화재로부터 건물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880년부터 1910년에 걸쳐 오타루에서는 대형 화재가 16번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목조 건물은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시오타니 창고와 이 도시 주변의 다른 석조 창고는 아주 작은 피해로 끝났습니다. 이 창고는 현재 카페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 구 다카하시 창고

다카하시 창고는 1923년에 다카하시 가문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다카하시 가문은 당시 쌀과 해산물을 판매하고 된장과 간장을 생산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생활필수품에 투기하는 것, 즉 팔을 매점하고 그 후 가격이 오를 때까지

저장했다가 판매하여 이익을 얻음으로써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 창고는 1989년에 개수되었으며, 2016년에는 스테인드글라스 미술관으로 문을 열어 영국 등 유럽의 교회에서 사용된 것을 복원한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을 전시하고 있습니다.